



RCEP 발효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과 시사점

남경수·최미라·채상현·김경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차원규 부연구위원	061-820-2189	wkcha@krei.re.kr
내 용 문 의	남경수 전문연구위원	061-820-2364	ksnam@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16호
RCEP 발효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3. 8.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RCEP 발효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과 시사점

남경수·최미라·채상현·김경호

요약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2022년 2월 1일 발효됨.

- RCEP 체결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ASEAN,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기존 FTA 협정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일본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음.
- 농산물 수출 측면에서는 상호대응세율 제도가 폐지되어 상호주의가 적용되던 ASEAN 일부 국가들에 대한 추가개방 효과가 기대됨.

RCEP 발효로 인한 추가 관세 인하 폭이 낮아 수출입활용률은 낮은 편임.

- RCEP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된 중국산 텍스트린의 2022년 RCEP 수입활용률은 72.2%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로 RCEP 1년 차에 세율 감축 폭이 작은 일본산 고양이 사료의 수입활용률은 62.8%, 맥주 72.1%, 위스키 68.1%로 나타났음.
- RCEP을 통한 상호주의 폐지 품목 중 관세가 철폐된 품목들의 수출활용률은 5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경우 관세 인하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수출활용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추후 관세 인하 폭이 커진다면 특혜관세 활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ASEAN 일부 국가에서 유지되던 상호주의 폐지와 추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 인하 폭이 커진다면,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ASEAN 일부 국가와 상호주의가 폐지되면서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수출량 및 수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향후 해당 국가로의 수출 전략 수립 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오랜 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일본으로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관세 인하 폭이 커짐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의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수출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

01



RCEP 체결 현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2022년 2월 1일 발효되었음.

- RCEP 참여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ASEAN 10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까지 총 15개 국가로 전 세계 GDP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큰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 협상 개시 시점에는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참여를 논의하였으나, 협정 타결 당시 무역 적자 심화 등의 이유로 인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종적으로 15개국이 가입을 결정함.
- RCEP는 2012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약 8년간의 공식협상,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¹⁾ 등을 거쳐, 2020년 11월 참여국들이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22년 2월 1일에 정식 발효됨.

표 1 RCEP 협정 추진 경과(완료)

일자	내용
2011. 11.	ASEAN 정상회의서 ASEAN+ 6개국이 참여하는 RCEP 협정 제안 및 추진
2012. 11.	ASEAN,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 16개국 RCEP 협정 개시 선언(브루나이)
2013. 5.	제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
2013. 8.	제1차 장관회의 개최(브루나이)
2017. 11.	제1차 정상회의 개최, 2018년 실질 타결 목표설정(필리핀)
2018. 11.	제2차 정상회의를 통해 2019년 협정 타결 결의(싱가포르)
2019. 11.	제3차 정상회의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타결(방콕)
2020. 11.	제4차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 서명(서울, 화상회의)
2022. 2.	RCEP 협정 정식 발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RCEP 상세 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s://fta.go.kr>). 검색일: 2023. 7. 3.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ASEAN,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기존 FTA 협정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 효과가 있음.

- RCEP 참여국 중 ASEAN,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와는 추가적인 개방과 통일된 무역 규범을 확보하였음.
- 일본은 2022년 기준 총 수입액과 수출액이 각각 547억 달러, 30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임. RCEP을 통한 개방 수준은 다소 낮으나, 신규 FTA를 체결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1) RCEP과 관련된 협상은 2013년 5월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총 31회의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가 이루어짐(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1. 15.).

농업 부문에서는 기체결 FTA 대비 개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일본과도 낮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음(표 2 참조).

- 우리나라는 RCEP 농업 부문 협상에서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생산 품목과 수입액이 큰 바나나, 파인애플 등을 양허에서 제외하였음.
- 중국과는 기체결 FTA 대비 4개 품목(녹용(전지, 녹각, 기타), 덱스트린), 호주는 2개 품목(돼지, 양 소시지 케 이상)이 추가개방되었음. 뉴질랜드는 자두 1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일부 감축되었음.
- ASEAN 국가들은 기존 FTA 체결에서 초민감품목²⁾으로 분류되었던 품목과 열대과일 일부가 추가개방 되었음. 이에 따라 국가별 관세 철폐율이 기존 66.3~76.2%에서 75.4~79.9%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 일본으로부터의 농업 부문 개방률은 46.2%로 타 FTA 평균 개방 수준(70%)에 비해 낮은 수준임. 농식품 중 청주, 맥주 등 주류와 동물 사료 등이 개방되었으나,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표 2 RCEP 협정의 농업 부문 기체결 FTA 대비 추가개방 품목(한국 측 개방 품목)

구분	기체결 FTA 주요 개방 품목	RCEP 주요 개방 품목				최종 철폐 품목 수 (철폐율)
		즉시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20년 철폐	
중국	대두, 라면, 사탕수수, 소시지, 소주, 맥주, 인삼음료, 김치·고사리·들깨 ¹⁾ , 참깨·대두(TRQ) 등	덱스트린 (변성전분)	-	-	녹용 (녹각, 전지 등)	1,036 (63.8%)
품목 수 (개방률)	1,032(63.6%)	1(0.1%)	-	-	3(0.2%)	
호주	사탕수수당, 쇠고기, 밀, 천일염, 맥아, 면 등	-	-	-	소시지 케이싱 (돼지, 양)	1,412 (87.0%)
품목 수 (개방률)	1,410(86.9%)	-	-	-	2(0.0%)	
뉴질랜드	쇠고기, 키위, 치즈, 버터조제품, 조제분유, 호박, 녹용, 버터 등	-	-	-	자두 ¹⁾	1,367 (84.2%)
품목 수 (개방률)	1,367(84.2%)	-	-	-	-	
일본	-	효모류, 사료, 단백질류, 사료, 말, 기타산동물, 대두, 물 등	커피(볶은 것), 사탕, 박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흰 포도주, 초콜릿 등	청주, 칠면조고기 (절단, 미절단), 커피조제품, 위스키, 포도주, 인삼음료, 토마토 등	소주, 맥주	750 (46.2%)
품목 수 (개방률)	-	307(18.9%)	374(23.0%)	67(4.1%)	2(0.1%)	

2) 한-ASEAN FTA에서는 품목 민감도 정도에 따라 국내 산업의 피해 정도가 미미한 일반품목군(NT: Normal Track), 비교적 민감한 민감품목군(SL: Sensitive List), 매우 민감한 초민감품목(HSL: 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상이한 양허안을 적용토록 함. 이때 초민감 품목(HSL)은 유형에 따라 관세 철폐율이 상이함(HSL A: 50% 이하로 관세를 인하, HSL B: 20% 이상으로 관세를 인하, HSL C: 50% 이상으로 관세를 인하, HSL D: TRQ 설정, HSL E: 양허 제외).

(계속)

구분	기체결 FTA 주요 개방 품목	RCEP 주요 개방 품목				최종 철폐 품목 수 (철폐율)
		즉시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20년 철폐	
ASEAN ²⁾	사탕수수당, 커피, 후추, 초콜릿, 대두유, 당근, 앞담배, 닭고기·망고 ¹⁾ 등	키위, 치즈(체더), 유채유 등	치즈(모차렐라), 두류, 캐슈너트, 대추야자, 구아바, 망고스틴, 레몬, 두리안, 김, 과일주스	거위·기니아새 (냉장·냉동), 맥주, 위스키, 토란, 포도 등	강낭콩, 거위·기니아새 (절단육), 녹용, 타피오카 등	1,223~1,297 (75.4~79.9%)
품목 수 (개방률)	1,076~1,237 (66.3~76.2%)	1~9 (0.1~0.6%)	17~64 (2.1~3.9%)	34~64 (2.1~3.9%)	8~10 (0.5~0.6%)	

주 1) 해당 품목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부분 감축을 의미함.

2) ASEAN의 주요 개방 품목과 품목 수(개방률)는 기체결 FTA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함.

3) 개방률은 FTA 체결로 인해 개방된 품목 수가 전체 품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RCEP 상세 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s://fta.go.kr>). 검색일: 2023. 7. 3.

농산물 수출 측면에서 보면, 기체결 FTA에서 개방 수준이 높아 RCEP 체결에서의 추가개방은 낮은 수준임. 다만, 상호주의³⁾ 폐지로 상호주의가 적용되던 ASEAN 일부 국가들에 대한 추가개방 효과가 예상된다(표 3 참조).

- 중국은 RCEP 협정을 통해 추가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농산물 품목은 없음.
- 호주, 뉴질랜드, ASEAN의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전 품목을 개방하였음.
- 일본의 경우, 최종 철폐율이 54.1%로 낮은 수준임. 가공식품 위주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신선 농산물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되었음.
- 한·ASEAN FTA의 상호주의가 폐지된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임. 딸기, 배, 사과, 감, 포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의 수출관세가 철폐되며 개방 수준이 확대되었음.
- 상호주의란 국가 간 등가의 이익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대우를 교환하는 것으로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양허했다 하더라도 수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품목의 양허관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임. 한-ASEAN FTA에서는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로 상호주의를 허용하였음. 상호대응세율은 한 국가가 민감품목군(ST)⁴⁾으로 양허한 품목을 일반품목군(NT)으로 양허한 상대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 당사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특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MFN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개념임(김석오, 2007).⁵⁾
- 예를 들어, 기체결 한-ASEAN FTA에서 우리나라는 딸기를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양허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함. 우리나라가 딸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경우, 한-ASEAN FTA 협정의 상호대응세율 규정에 따라 특혜세율(0%) 적용이 제한되고, 상호대응세율 규정에 따라 MFN 세율(5%)⁶⁾을 적용받음.

3) 한-ASEAN FTA에서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양허했다 하더라도 수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품목의 양허관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임.

4) 한-ASEAN FTA에서는 품목 민감도 정도에 따라 국내 산업의 피해 정도가 미미한 일반품목군(NT: Normal Track), 비교적 민감한 민감품목군(ST: Sensitive Track), 매우 민감한 초민감품목(HSL: 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상이한 양허안을 적용토록 함.

5) 단, 상호대응세율 제도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수입당사국의 선택사항이므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자국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정됨.

- RCEP 체결을 통해 상호주의가 철폐되며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이며, 그 외의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과는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상호주의 제도 적용이 중단됨. RCEP 체결로 인해 인도네시아 측의 농산물 추가 관세 철폐 품목 수는 394개, 필리핀 측은 147개, 태국 측은 361개, 캄보디아 측은 388개로 나타남. 이는 ASEAN 타 국가의 관세 철폐 품목(브루나이, 싱가포르는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전 품목 관세 철폐, 라오스 35개, 말레이시아 1개, 미얀마 124개, 베트남 2개)보다 높은 수준임.

표 3 RCEP 협정의 농업 부문 기체결 FTA 대비 추가개방 품목(상대국 개방 품목)

국가	기체결 FTA 주요 개방 품목	RCEP 주요 개방 품목				최종 철폐 품목 수 (철폐율)
		즉시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20년 철폐	
중국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딸기, 쇠고기, 돼지고기, 과채가공품, 채소류 등	-	-	-	-	1,032(63.6%)
품목 수 (개방률)	1,032(63.6%)	-	-	-	-	
호주	기체결 100% 개방	-	-	-	-	830(100.0)
품목 수 (개방률)	830(100.0)	-	-	-	-	
뉴질랜드	기체결 100% 개방	-	-	-	-	1,073(100.0)
품목 수 (개방률)	1,073(100.0)	-	-	-	-	
일본	-	인스턴트티, 생수, 탄산수, 유지 가공품 등	송이버섯, 딸기(조제), 배, 식초, 겨자 등	기타과실, 포도주, 과일주스, 과실혼합물 등	소주, 막걸리	930(54.1%)
품목 수 (개방률)	-	649(37.7%)	205(11.9%)	74(4.3%)	2(0.1%)	
인도네시아*	감자, 당근, 버섯류, 면류, 껌, 물 등	인삼류, 배, 양송이버섯, 사과, 감, 포도 등	간장, 면류(국수 등), 고추(기타), 강낭콩, 파인애플, 딸기, 표고버섯 등	마늘, 양배추, 레몬, 녹차 등	닭고기 등	1,206(92.8%)
품목 수 (개방률)	812(62.5%)	275(21.2%)	76(5.8%)	40(3.1%)	3(0.2%)	
말레이시아	사과, 배, 포도, 딸기, 감, 감귤, 인삼, 면류, 버섯류 등	기타육류 (파종류)	-	-	-	1,124(91.0%)
품목 수 (개방률)	1,123(90.9%)	1(0.1%)	-	-	-	

6) 최혜국 대우 세율(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로 양국 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임.

(계속)

국가	기체결 FTA 주요 개방 품목	RCEP 주요 개방 품목				최종 철폐 품목 수 (철폐율)
		즉시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20년 철폐	
필리핀*	면류, 과당, 물, 오이, 수박, 감자(냉동), 양파(건조), 마늘(건조) 등	쇠고기, 감, 포도, 배, 사과, 딸기, 꿀, 복숭아, 간장 등	-	맥주, 돼지고기 (염지, 삼겹), 땅콩, 시금치 등	-	1,082(78.0%)
품목 수 (개방률)	714(51.4%)	337(24.3%)	-	31(2.2%)	-	
태국*	물, 당근, 수박, 오이, 껌, 사료, 면류 등	사과, 감귤, 포도, 딸기, 감 등	과일주스 (감귤·사과류), 인삼류, 쌀조제품 등	마늘(기타), 생강, 고추 (건조·분쇄), 쌀가루 등	브랜드, 맥주, 리큐르, 천연꿀, 참깨 등	1,053(82.4%)
품목 수 (개방률)	692(54.1%)	226(17.7%)	53(4.1%)	46(3.6%)	36(2.8%)	
베트남	닭고기, 사과, 딸기, 포도, 감, 인삼 등	주류 등	-	-	-	1,183(92.6%)
품목 수 (개방률)	1,181(92.4%)	2(0.2%)	-	-	-	
브루나이	기체결 100% 개방	-	-	-	-	1,280(100.0%)
품목 수 (개방률)	1,280(100.0%)	-	-	-	-	
싱가포르	기체결 100% 개방	-	-	-	-	1,038(100.0%)
품목 수 (개방률)	1,038(100.0%)	-	-	-	-	
캄보디아*	물, 고추, 녹차, 쇠고기(냉동·절단), 버섯(건조), 시금치류 등	호두, 치즈(가루), 쇠고기(설육), 밀가루, 돼지고기 (염지, 설육) 등	과일주스 (감귤류), 돼지고기 (전·후지), 밤, 감자(기타), 사과, 쇠고기, 참깨, 후추 등	쇠고기, 돼지고기(전지), 딸기, 키위, 사과, 포도(건조), 고추(건조· 분쇄) 등	자두, 수박, 양배추, 닭고기, 토마토 등	1,203(94.1%)
품목 수 (개방률)	815(63.8%)	139(10.9%)	70(5.5%)	73(5.7%)	106(8.3%)	
라오스	포도, 사과, 배, 딸기, 닭고기, 우유, 당근 등	곡류가공품 (콘플레이크, 기타) 등	-	당류, 곡류가공품 등	백합, 국화, 난, 카네이션, 장미, 연초류 등	975(75.4%)
품목 수 (개방률)	941(73.6%)	3(0.2%)	-	2(0.2%)	30(2.7%)	
미얀마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배, 포도 등	기타산동물, 면, 곡류 등	식물성유지, 박류 등	-	기타식물성 유지, 유지가공품 등	1,253(88.5%)
품목 수 (개방률)	1,129(79.7%)	15(1.1%)	72(5.1%)	-	37(2.6%)	

주 1) 품목 수(개방률)는 한·ASEAN FTA에서 상호주의 제도로 관세율이 적용되던 품목들도 포함한 수치임.

2) *표시는 RCEP 협정을 통해 한·ASEAN 상호주의 제도가 철폐된 국가를 의미하며, 밑줄 표시는 상호주의 해제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 품목임.

3) ASEAN의 주요 개방 품목과 품목 수(철폐율)는 기체결 FTA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함.

4) 개방률은 FTA 체결로 인해 개방된 품목 수가 전체 품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RCEP 상세 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s://fta.go.kr>). 검색일: 2023. 7. 3.

02



RCEP 발효에 따른 농식품 수출입 변화

2.1. RCEP 참여국가별 농식품 교역)

RCEP 발효 1년 차인 2022년 RCEP 국가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은 185억 5천만 달러로 **對세계 수입액 (484억 1천만 달러)의 38.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7.8%, 평년 대비 36.4% 증가함.**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9.4%, 평년 대비 25.5%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수입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쌀, 김치, 고추, 대두 등임.
- ASEAN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22.7%, 평년 대비 40.6%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수입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팜유, 닭고기, 파인애플, 껌 등임.

표 4 RCEP 발효 전후 RCEP 국가별 농식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9년	2021년 (A)	발효 전 5년 평년 (B)	2022년 (C)	변화율(%)		주요 품목
						(C-A)/A* 100	(C-B)/B* 100	
중국	4,439	4,410	5,194	4,528	5,684	9.4	25.5	혼합조제식료품, 쌀, 김치, 고추, 대두
ASEAN	4,535	4,875	5,738	5,011	7,043	22.7	40.6	팜유, 바나나, 닭고기, 파인애플, 껌, 기타 과일
호주	2,818	2,464	3,142	2,611	3,924	24.9	50.3	쇠고기, 밀, 면양고기, 보리
뉴질랜드	920	924	1,120	953	1,307	16.7	37.1	쇠고기, 키위, 치즈, 버터
일본	609	531	546	562	592	8.4	5.3	혼합조제식료품, 청주, 맥주
RCEP 합계	13,321	13,205	15,741	13,595	18,548	17.8	36.4	-
전 세계	32,246	34,306	41,902	34,629	48,408	15.5	39.8	-

주 1) RCEP은 2022년 2월에 발효되었으나, 분석자료는 연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2) 발효 전 5년 평년은 '17~'21년의 5개년 올림평균값을 의미함.

3) 주요 수입 품목은 수입액이 중국은 1억 달러 이상, ASEAN, 호주, 뉴질랜드는 5천만 달러 이상, 일본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농식품을 제시함 (2022년 수입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3. 3. 15.

7) 농식품 품목은 신선 농산물과 세척, 절단 등을 포함한 1차 가공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등 농식품 전체를 포함하는 범위임.

- 호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24.9%, 평년 대비 50.3%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수입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쇠고기, 밀, 면양고기, 보리 등임.
-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6.7%, 평년 대비 37.1%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수입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쇠고기, 키위, 치즈, 버터 등임.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8.4%, 평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수입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청주, 맥주, 라면 등임.

RCEP 발효 1년 차인 2022년 우리나라의 對RCEP 농식품 수출액은 49억 3천만 달러로 對세계 수출액(87억 7천만 달러)의 56.2% 비율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3.8%, 평년 대비 21.2% 증가함. 일본, ASEAN, 호주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 중국과 뉴질랜드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함.

- 對일본 수출액은 전년 대비 7.5%, 평년 대비 12.3%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껌, 기타 소스제품 등임.
- 對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반면, 평년 대비 15.3%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수출액이 감소한 품목은 커피조제품, 기타 소스제품 등임.
- 對ASEAN 수출액은 전년 대비 5.8%, 평년 대비 34.1%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라면, 물, 기타 음료 등임.

표 5 RCEP 발효 전후 RCEP 국가별 농식품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9년	2021년 (A)	발효 전 5년 평년 (B)	2022년 (C)	변화율(%)		주요 품목
						(C-A)/A* 100	(C-B)/B* 100	
일본	1,314	1,427	1,422	1,361	1,528	7.5	12.3	껌, 혼합조제 식품, 파프리카, 김치, 라면
중국	986	1,106	1,340	1,118	1,289	-3.8	15.3	라면, 혼합조제 식품, 조제분유
ASEAN	1,208	1,374	1,770	1,397	1,874	5.8	34.1	혼합조제식품, 라면, 물, 커피조제품, 껌
호주	171	143	169	161	194	15.2	20.6	라면, 커피조제품, 혼합조제식품
뉴질랜드	34	34	46	36	44	-4.7	23.8	라면, 혼합조제 식품, 김치
RCEP 합계	3,712	4,084	4,747	4,066	4,929	3.8	21.2	-
전 세계	6,820	7,028	8,560	7,181	8,768	2.4	22.1	-

주 1) RCEP은 2022년 2월에 발효되었으나, 분석자료는 연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2) 발효 전 5년 평년은 '17-'21년의 5개년 올림픽평균값을 의미함.

3) 주요 수출 품목은 수출액이 일본, 중국, ASEAN은 5천만 달러 이상, 호주는 1천만 달러 이상, 뉴질랜드는 1백만 달러 이상인 주요 농식품을 제시함(2022년 수출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3. 3. 15.

- 對호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2%, 평년 대비 20.6%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라면, 커피조제품, 혼합조제식료품 등임.
-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23.8%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수출액이 감소한 품목은 커피조제품, 혼합조제식료품 등임.

2.2. 주요 품목별 교역

2022년 RCEP 체결국에서 많이 수입된 주요 품목은 쇠고기, 밀, 닭고기, 바나나, 김치, 치즈, 고추, 키위, 대두, 파인애플 등이며, 바나나와 고추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액이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함.

- 2022년 RCEP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액은 1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4%, 평년 대비 34.4% 증가하였으며, 쇠고기는 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됨.
- 2022년 RCEP 국가로부터의 밀 수입액은 7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3.9%, 평년 대비 137.7% 크게 증가하였으며, 밀은 주로 호주에서 수입됨.
- 2022년 RCEP 국가로부터의 바나나 수입액은 2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 평년 대비 9.3% 감소하였으며, 바나나는 주로 ASEAN 국가에서 수입됨.

표 6 RCEP 발효 전후 주요 농식품 수입액 동향과 주요 국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9년	2021년 (A)	발효 전 5년 평년 (B)	2022년 (C)	변화율(%)		주요 국가
						(C-A)/A* 100	(C-B)/B* 100	
쇠고기	1,156	1,228	1,509	1,228	1,650	9.4	34.4	호주, 뉴질랜드
밀	274	322	362	311	738	103.9	137.7	호주
닭고기	105	182	161	154	209	29.5	35.5	ASEAN, 중국
바나나	292	242	223	250	227	1.8	-9.3	ASEAN
김치	129	131	141	137	169	20.4	24.0	중국
치즈	122	116	155	130	166	6.9	27.1	뉴질랜드, 호주
고추	134	147	177	155	172	-3.2	10.4	중국
키위	56	90	144	95	157	8.8	64.1	뉴질랜드
대두	41	43	53	43	106	101.3	144.3	중국
파인애플	86	79	76	80	91	19.4	14.4	ASEAN

주 1) RCEP은 2022년 2월에 발효되었으나, 분석자료는 연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2) 발효 전 5년 평년은 '17~'21년의 5개년 올림픽평균값을 의미함.

3) 농식품 수입 품목은 수입액이 9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농식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국가는 RCEP 국가의 전체 수입액에서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를 제시하였음(2022년 수입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3. 3. 15.

2022년 RCEP 체결국으로 수출한 주요 농식품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껌, 커피조제품, 조제분유, 파프리카, 김치, 홍삼, 유자차, 딸기, 돼지고기 등이며, 라면, 조제분유, 홍삼, 막걸리 등의 수출액이 증가한 반면, 파프리카, 토마토, 밤의 수출액이 감소함.

- 2022년 RCEP 국가로의 라면 수출액은 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8%, 평년 대비 44.4% 증가하였으며, 주로 중국, ASEAN, 일본 등으로 수출됨.
- 주로 ASEAN과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의 2022년 RCEP 국가로의 수출액은 1천 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평년 대비 247.2% 증가함.
-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2022년 RCEP 국가로의 수출액은 각각 7천 3백만 달러와 1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와 20.0% 감소하였으며, 평년 대비 17.9%와 15.8% 감소함.

표 7 RCEP 발효 전후 주요 농식품 수출액 동향과 주요 국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9년	2021년 (A)	발효 전 5년 평년 (B)	2022년 (C)	변화율(%)		주요 국가
						(C-A)/A* 100	(C-B)/B* 100	
혼합조제 식료품	355	377	603	413	561	-7.0	35.8	중국, ASEAN, 일본
라면	239	286	378	295	426	12.8	44.4	중국, ASEAN, 일본
껌	456	371	250	335	263	5.1	-21.5	일본, ASEAN
커피 조제품	128	129	158	129	157	-0.4	22.1	ASEAN, 중국
조제분유	74	91	100	90	101	1.7	12.8	중국, ASEAN
파프리카	89	91	82	89	73	-10.9	-17.9	일본
김치	54	66	95	73	76	-19.9	4.6	일본
소주	76	69	61	70	63	2.9	-10.3	일본, 중국, ASEAN
홍삼	28	41	50	38	53	5.4	37.2	중국
유자차	24	26	34	28	33	-2.3	19.0	중국, ASEAN, 일본
딸기	25	35	41	32	41	-0.6	25.4	ASEAN
맥주	60	91	14	61	21	43.4	-66.0	일본, 중국, 호주
돼지고기	3	4	17	5	17	-0.3	247.2	ASEAN, 일본
토마토	12	16	15	14	12	-20.0	-15.8	일본
밤	23	15	15	17	12	-14.3	-25.8	중국, 일본
막걸리	10	9	11	9	11	3.3	20.0	일본, 중국

주 1) RCEP은 2022년 2월에 발효되었으나, 분석자료는 연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2) 발효 전 5년 평년은 '17~'21년의 5개년 올림픽평균값을 의미함.

3) 농식품 수출 품목은 수출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농식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국가는 RCEP 국가로의 전체 수출액에서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를 제시하였음(2022년 수출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3. 3. 15.

2.3. RCEP 추가개방 품목의 교역

RCEP 협정을 통한 추가개방 주요 품목은 일본산 고양이 사료, 맥주, 위스키류, 중국산 텍스트린 등이며, 일본산 고양이 사료와 커피추출물, 맥주를 제외한 품목의 2022년 수입액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함.

- 2022년 고양이 사료의 對세계 수입액은 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7%, 평년 대비 59.3% 증가하였으며, 일본산 고양이 사료 수입액은 1천 8백만 달러(對세계 수입액의 13.7%)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지만, 평년 대비 29.6% 증가함.
- 2022년 텍스트린의 對세계 수입액은 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8.6%, 평년 대비 68.4% 증가했으며, 중국산 텍스트린 수입액은 9십만 달러(對세계 수입액의 13.0%)로 전년 대비 34.8%, 평년 대비 44.5% 증가함.
- 전반적으로 수입량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맥주의 2022년 對세계 수입액은 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평년 대비 24.1% 감소하였으며,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1천 4백만 달러(對세계 수입액의 7.4%)로 전년보다는 110.7% 증가하였지만, 평년 대비 63.2% 감소함.

표 8 RCEP 협정을 통한 추가개방 주요 품목 수입액 동향

단위: 만 달러

구분	HS CODE	HS CODE명	국가	2017년	2019년	2021년 (A)	발효 전 5년 평년 (B)	2022년 (C)	변화율(%)	
									(C-A)/A*100	(C-B)/B*100
가공 식품	2309102000	고양이 사료	전 세계	6,400	8,073	11,818	8,357	13,314	12.7	59.3
			일본	960	1,308	1,866	1,406	1,822	-2.4	29.6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전 세계	1,750	1,682	1,713	1,739	2,098	22.5	20.6
			ASEAN	1,733	1,667	1,682	1,714	2,072	23.2	20.9
	2203000000	맥주	전 세계	26,309	28,089	22,310	25,695	19,510	-12.5	-24.1
			일본	7,141	3,976	688	3,935	1,448	110.7	-63.2
	2208309000	위스키류 (스카치, 버번, 라이 이외 기타)	전 세계	4,961	6,109	4,431	4,992	7,808	76.2	56.4
			일본	52	130	279	141	371	32.7	162.2
	2101111000	커피 추출물·에센스 (인스턴트 커피)	전 세계	4,277	6,465	9,329	6,134	8,965	-3.9	46.2
			일본	38	561	678	355	284	-58.1	-20.1
	3505101000	텍스트린	전 세계	423	409	659	425	716	8.6	68.4
			중국	60	64	69	64	93	34.8	44.5
과일 채소	2001901000	과실, 견과류 (식초, 조산 조제)	전 세계	3	1	21	6	15	-30.8	161.0
			일본	1	0	1	1	5	512.9	485.8
축산물	9602001000	젤라틴캡슐	전 세계	186	296	364	289	380	4.5	31.4
			일본	59	89	80	76	82	2.1	7.1
	6110120000	캐시미어 염소의 것 (저지, 풀오버, 카디건 등 이와 유사한 의류)	전 세계	5,102	7,242	7,621	6,542	8,690	14.0	32.8
			일본	10	26	6	8	23	312.0	181.0

주 1) RCEP은 2022년 2월에 발효되었으나, 분석자료는 연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2) 발효 전 5년 평년은 '17~'21년의 5개년 올림피평균값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3. 3. 15.

RCEP 협정에서 상대국이 추가로 개방한 주요 수출 품목은 쌀과 배, 감, 소주와 막걸리, 기타 당 등이며, 대부분 품목은 2022년 해당 국가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감과 소주는 감소하였음.

- 2022년 우리나라 배 수출액은 7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지만, 평년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으로의 수출액은 각각 전년 대비 9.1%와 99.8% 증가함. 단, 필리핀으로의 수출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2022년 우리나라 쌀 수출액은 5천 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지만, 평년 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으로 수출액은 각각 전년 대비와 평년 대비 모두 증가함.
- 2022년 우리나라 소주 수출액은 9천 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2%, 평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일본으로의 소주 수출액은 3천 6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0.5%, 평년 대비 20.3% 감소함.

표 9 RCEP 상대국 추가개방 주요 품목 수출액 동향

단위: 만 달러

품목명	국가	2017년	2019년	2021년 (A)	발효 전 5년 평년 (B)	2022년 (C)	변화율(%)	
							(C-A)/A *100	(C-B)/B *100
소주	전 세계	9,473	8,974	8,242	9,002	9,333	13.2	3.7
	일본	5,426	4,456	3,585	4,477	3,567	-0.5	-20.3
배	전 세계	6,628	8,327	7,183	7,454	7,439	3.6	-0.2
	인도네시아	91	71	108	76	118	9.1	55.0
	필리핀	2	10	1	5	3	99.8	-44.6
기타 당	전 세계	5,271	5,636	5,901	5,603	6,227	5.5	11.1
	필리핀	27	34	687	81	866	26.1	972.2
쌀	전 세계	4,398	5,445	6,468	5,190	5,863	-9.3	13.0
	인도네시아	68	90	235	103	264	12.5	157.6
	필리핀	1	2	143	6	233	62.7	3,641.2
	태국	590	673	889	679	898	1.1	32.4
막걸리	전 세계	1,225	1,219	1,580	1,238	1,568	-0.8	26.7
	일본	690	648	720	667	765	6.3	14.7
감	전 세계	815	833	394	803	706	79.2	-12.1
	태국	56	54	10	48	36	250.7	-24.9

주 1) RCEP은 2022년 2월에 발효되었으나, 분석자료는 연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2) 발효 전 5년 평년은 '17~'21년의 5개년 올림픽평균값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3. 3. 15.

03



RCEP 발효에 따른 수출입활용률 변화

3.1. 주요 품목의 RCEP 수입활용률⁸⁾

RCEP 참여국 중 일본을 제외하면 RCEP 이전에 개별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ASEAN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RCEP 체결로 추가 양허된 품목은 많지 않음(표 2, 3 참조).

- 우리나라가 RCEP 참여국 중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김치, 고추 등이며, ASEAN으로부터는 팜유, 열대과일,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는 쇠고기, 유제품, 키위, 일본으로부터는 혼합조제식료품, 주류 등임.
- 우리나라가 일본을 포함하여 RCEP 참여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김치 등임.
- 다만, 국가별 주요 교역 품목들은 기체결 FTA에서 이미 양허⁹⁾하였거나, 여전히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¹⁰⁾되어 RCEP 체결 시 양허 제외된 품목이 다수임. 따라서 RCEP 발효에 따른 수출입활용률 변화는 RCEP 체결 시 추가로 양허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RCEP 협정세율 혜택을 받고 수입된 품목은 일본산 고양이 사료, 맥주, 위스키류, 중국산 덱스트린¹¹⁾이 있으며, 관세 인하 혜택이 큰 품목의 RCEP 수입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일본으로부터 RCEP 협정에서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수입된 품목은 고양이 사료(10년 철폐), 맥주(20년 철폐), 위스키류(15년 철폐)임. 이들 품목은 RCEP 발효 1년 차인 2022년 감축 세율 폭이 크지 않지만, 일본과 신규 FTA 체결 영향으로 인해 RCEP 활용률은 각각 62.8%, 72.1%, 68.1%로 나타남.
- 관세 인하 품목 중 가장 높은 RCEP 수입활용률을 보인 품목은 RCEP 협정을 통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 중국산 덱스트린이며, 기본세율 8%에서 0%로 감축되어 타 품목 대비 RCEP 활용률(72.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對일본 농업 부문 개방률은 타 FTA 개방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며, RCEP 발효 1년 차인 2022년에 관세 인하 폭이 낮아 RCEP 수입활용률도 높은 수준은 아님. 다만,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므로 수입 동향 및 관세활용률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8) 수입활용률이란 FTA로 인해 관세가 인하(혹은 철폐)된 품목의 총수입금액 대비 실제로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금액으로 산출되며, 수입 시 FTA 특혜관세의 활용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됨.

9) 중국(김치, 당면 등), ASEAN(팜유, 사탕수수당 등), 호주(쇠고기, 밀 등), 뉴질랜드(쇠고기, 키위 등).

10) 중국(마늘, 고추, 당근 등), ASEAN(닭고기(기타조제), 파인애플, 바나나 등), 뉴질랜드·호주(녹용, 천연꿀 등), 일본(기타소스제품, 인스턴트 카레 등).

11) 덱스트린(Dextrin)은 D-글루코스에서 파생된 천연 고분자 화합물로서, 아밀레이스와 같은 효소에 의한 전분 또는 글리코겐의 가수분해로 생성되는 저분자량의 다당류이며, 식품 첨가물, 제약 산업 등에 사용됨(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3607&cid=62802&categoryId=62802#_datalab). 검색일: 2023. 7. 9.).

표 10 발효 1년 차(2022년) RCEP 협정세율 적용 수입액

단위: 천 달러

구분	HS CODE	HS CODE명	수입국	양허 내용	수입액			비율(%)	
					전 세계 (A)	해당국 (B)	RCEP 관세 적용 (C)	전 세계 비율 (B/A)	RCEP 활용률 (C/B)
가공 식품	2309102000	고양이 사료	일본	10년 철폐	133,136	18,220	11,445	13.7	62.8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아세안	10년 철폐	20,975	20,723	11,354	98.8	54.8
	2203000000	맥주	일본	20년 철폐	195,101	14,484	10,442	7.4	72.1
	2208309000	위스키류 (스카치, 버번, 라이 이외 기타)	일본	15년 철폐	78,085	3,705	2,522	4.7	68.1
	2101111000	커피 추출물·에센스 (인스턴트 커피)	일본	15년 철폐	89,654	2,837	1,654	3.2	58.3
	3505101000	덱스트린	중국	즉시 철폐	7,161	928	670	13.0	72.2
과일 채소	2001901000	과실, 견과류 (식초, 초산 조제)	일본	10년 철폐	145	51	13	35.4	25.3
	9602001000	젤라틴캡슐	일본	10년 철폐	3,801	816	228	21.5	27.9
축산물	6110120000	캐시미어 염소의 것 (저지, 풀오버, 카디건 등 이와 유사한 의류)	일본	10년 철폐	86,897	232	163	0.3	70.1

주: 농림축산물 관련 3,081개 HSK코드 기준으로 입산물은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3. 3. 15.;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23. 4. 10.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2. RCEP 발효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출활용률¹²⁾

일본(소주, 막걸리)과 상호주의가 철폐된 인도네시아(배, 딸기), 필리핀(배, 딸기, 기타당), 태국(감, 딸기)을 중심으로 수출활용률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남.

- 우리나라는 다협정을 맺은 국가(호주, 중국, 뉴질랜드, ASEAN)로 수출 시 2개 이상의 FTA를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2022년에 인도네시아로 딸기를 수출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는 한-ASEAN FTA(5%)와 RCEP 협정세율(0%)임. 즉, 우리나라는 국가별로 농식품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와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등을 고려해 가장 혜택인 큰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 가공식품의 경우, 첨가되는 다양한 원재료로 인해 국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상이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 농축산물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RCEP 협정세율이 한-ASEAN FTA 협정세율보다 낮은 품목의 2022년 수출활용률이 증가한다면, 이는 RCEP 체결로 인한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수출활용률 추정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서는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산지 표시 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도 존재함.¹³⁾

12) 해당 국가의 품목별 관세는 Kementerian Keuangan(<https://insw.go.id/intr>). 검색일: 2023. 7. 3.; Thai customs(http://itd.customs.go.th/igt/en/main_frame.jsp). 검색일: 2023. 7. 3.; Trade 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검색일: 2023. 7. 3. 자료를 참조함.

일본

- RCEP 발효 1년 차 RCEP 수출활용률이 증가한 주요 수출 품목은 소주(16%, 20년 철폐), 막걸리(42.40엔/ℓ, 20년 철폐)로 수출활용률은 각각 24.4%, 28.4%임.
- 위의 품목은 15~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어 발효 1년 차에는 관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수출활용률이 25% 내외로 나타남. 다소 낮은 수출활용률은 추후 관세 인하 폭이 커짐에 따라 더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인도네시아

- 한·ASEAN 상호주의 제도 철폐로 RCEP 발효 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배(5%, 즉시 철폐), 딸기(5%, 10년 철폐)가 대표적임. 2022년 관세가 즉시 철폐된 배의 수출활용률은 전년 대비 54.8%p 상승한 62.9%로 나타났고, 2022년에 4.5%의 관세가 부과된 딸기의 수출활용률은 32.3%p 상승한 50.0%로 나타남. 관세 하락 폭이 큰 배의 수출활용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관세 하락 폭이 낮은 딸기도 RCEP 체결을 통해 수출활용률이 크게 개선됨.

필리핀

- 한·ASEAN 상호주의 제도 철폐로 양허된 품목은 딸기(15%, 즉시 철폐), 배(7%, 즉시 철폐), 기타 당(3%, 즉시 철폐)임. 2021년에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2021년 딸기 수출액은 143만 2천 달러, 2022년 수출액은 232만 9천 달러로 전년 대비 62.7% 증가함. RCEP 발효 1년 차인 2022년에 FTA 활용률은 62.7%이며, 이는 전년 대비 19.7%p 상승한 수준임.
- 2022년 對필리핀 배 수출액은 2만 9천 달러로 큰 수준은 아니지만, RCEP 수출관세율을 잘 활용한 품목으로 앞으로의 수출액 증가 가능성이 존재함. 2022년 기타 당 수출액은 866만 달러로 2017년 27만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함. 2022년 RCEP을 통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RCEP 수출관세활용율은 30.9%로 전년 대비 26.9%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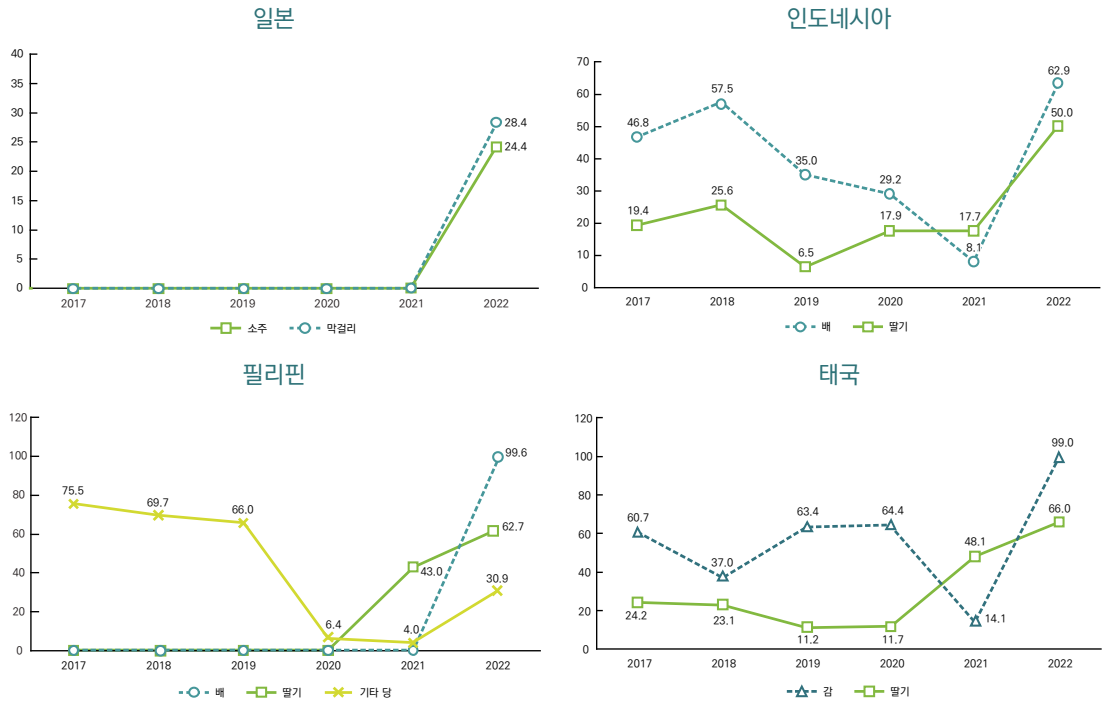
태국

- 태국에서 한·ASEAN 상호대응세율 제도로 관세가 부과되었던 품목 중 딸기(5%), 감(5%), 키위(5%)는 RCEP 체결을 통해 관세가 즉시 철폐됨. 2022년 딸기의 RCEP 수출활용률은 66.0%로 전년 대비 17.8%p 상승하였고, 감은 對태국 수출액 기준 주요 품목은 아니지만, RCEP 발효 후 수출활용률은 99.0%로 전년 대비 84.9%p 상승하여 RCEP 발효 이후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3) 일본으로 수출한 농식품의 경우, 2022년 RCEP 체결 이전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사례가 있음.

그림 1 RCEP 발효에 영향을 받은 국가의 FTA 수출활용률 추세

단위: %



주 1) 농림축산물 관련 3,081개 HSK코드 기준으로 함.

주 2) 수출활용률(%)은 RCEP 발효를 통해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 품목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액/RCEP 양허(ASEAN은 추가양허) 품목 수출액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3. 3. 15.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04



요약 및 시사점

요약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2022년 2월 1일 발효되었음. RCEP 체결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ASEAN,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기존 FTA 협정을 강화하고, 교역 규모가 큰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 효과가 있음.
- 농업 부문에서는 기체결 FTA 대비 수입 개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일본과도 낮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농산물 수출 측면에서 상호대응세율 제도의 폐지로 상호주의가 적용되던 ASEAN 일부 국가들에 대한 추가개방 효과가 존재함.
- RCEP 발효 1년 차인 2022년 RCEP 국가로의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185억 5천만 달러로 對세계 수입액의 38.3%를 차지하였으며, RCEP 참여국으로의 수입은 모두 증가함. 2022년 RCEP 체결국에서 많이 수입된 주요 품목은 쇠고기, 밀, 닭고기, 바나나, 김치, 치즈, 고추, 키위, 대두, 파인애플 등이며, 고추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증가함.
- 對RCEP 국가 농식품 수출액은 49억 3천만 달러로 對세계 수출액의 56.2% 비율을 차지하며, 일본, ASEAN, 호주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중국과 뉴질랜드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함. 2022년 RCEP 체결국으로 수출한 주요 농식품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껌, 커피조제품, 조제분유, 파프리카, 김치, 홍삼, 유자차, 딸기, 돼지고기 등이며, 라면, 조제분유, 홍삼, 등의 수출액이 증가한 반면, 혼합조제식료품, 파프리카, 김치, 토마토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함.
- 2022년에 RCEP 협정세율 혜택을 받고 수입된 품목 중 관세가 즉시 철폐된 중국산 덱스트린의 RCEP 수입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음. 일본산 고양야 사료, 맥주, 위스키의 수입활용률은 RCEP 1년 차에 관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추후 관세 인하 폭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 RCEP 체결은 일본으로 수출 증가와 상호주의 철폐로 인한 ASEAN 일부 국가들의 추가개방으로 수출활용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RCEP 체결을 통해 상호주의가 철폐되며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이며, 주요 품목인 딸기, 배, 감 등임.

- RCEP 발효 1년 차 일본의 소주, 막걸리의 수출활용률이 각각 24.4%, 28.4%로 나타났으며, 장기에 걸친 관세 철폐로 발효 1년 차에는 관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수출활용률이 25% 수준에 머물렀음. 다만, 추후 관세 인하 폭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출활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ASEAN 상호주의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배(5%, 즉시 철폐), 딸기(5%, 10년 철폐), 필리핀의 딸기(15%, 즉시 철폐), 배(7%, 즉시 철폐), 기타 당(3%, 즉시 철폐), 태국의 딸기(5%, 즉시 철폐)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됨.

시사점

- RCEP은 참여국의 무역 규모, 인구, GDP 등이 전 세계 약 30%에 달하는 메가 FTA임. 다만, RCEP 참여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기존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관세 인하는 크지 않으며, 일본과의 협상 또한 민감품목은 대부분 배제되었음.
- RCEP 발효 이후 對RCEP 국가 수입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RCEP으로 인한 추가개방의 결과로 보기 어려움. 수입활용률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없었고 수입 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일부 품목은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에서도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ASEAN의 일부 국가에서 유지되던 상호주의가 RCEP 협정으로 폐지된 부분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 큰 기회가 될 수 있음. 상호주의가 폐지된 인도네시아(배, 딸기), 필리핀(배, 딸기, 기타당), 태국(감, 딸기)으로의 수출액이 현재 단계에서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세 인하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해당 국가로 수출 전략 수립 시 전략적 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딸기, 배, 단감, 파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수출통합조직을 구성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현재 각 품목의 주요 수출시장에 상호주의가 폐지된 국가는 제외된 상황으로 상호주의로 인한 관세 혜택을 고려한다면, 해당 국가들도 주요 수출시장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RCEP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들의 RCEP 수출활용률은 전반적으로 50%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경우 관세 인하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수출활용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추후 관세 인하 폭이 커질 경우, 특혜관세의 활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의 수출에서, 많은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1). RCEP 상세 설명자료.

김석오. (2007).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주류산업 27(2), pp. 54-68.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Kementerian Keuangan(<https://insw.go.id/intr>). 검색일: 2023. 7. 3.

Thai customs(http://itd.customs.go.th/igt/en/main_frame.jsp). 검색일: 2023. 7. 3.

Trade 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검색일: 2023. 7. 3.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23. 4. 10.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3607&cid=62802&categoryId=62802#__datalab).
검색일: 2023. 7. 9.

산업통상자원부(<https://fta.go.kr>). 검색일: 2023. 7. 3.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3. 3. 1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11.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농업분야 협상결과-.”



2023년

- 제216호 RCEP 발효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과 시사점(남경수, 최미라, 채상현, 김경호)
- 제215호 새 시대 농어업인 삶의질향상정책 개선 방향(송미령, 심재현, 권인혜)
- 제214호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김동훈, 박혜진)

2022년

- 제213호 2023년 10대 농정이슈(국승용 외)
- 제212호 2022 지역발전지수(RDI)(송미령, 성주인, 심재현, 민경찬, 김민석, 손경민, 유서영, 이진)
- 제211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국승용, 김창호)
- 제210호 농촌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선 과제 (김수린, 조승연, 김정승)
- 제209호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김상호, 김종진, 주준형)
- 제208호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성주인, 송미령, 한이철, 정학성)
- 제207호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김경필, 이현근, 곽혜선, 명수환, 구혜민, 박서윤)
- 제206호 신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송미령, 성주인, 심재현, 한이철, 권인혜)
- 제205호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곡물 시장 영향 분석(김종진, 김지연, 정대희, 박성진, 김범석, 윤성주)
- 제204호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김상현, 정대희, 이두영)
- 제203호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정도채, 박혜진)
- 제202호 2022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21년

- 제201호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실태와 시사점(국승용, 서홍석, 서동주, 권상욱, 김경진)
- 제200호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송미령, 성주인, 심재현, 한이철, 민경찬)
- 제199호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김연중, 서대석, 허정희, 이정민)
- 제198호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김상호, 이계임, 유기환)
- 제197호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송미령, 성주인, 심재현, 서형주)
- 제196호 2021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20년

- 제195호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우병준, 박혜진)
- 제194호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중심으로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정도채, 한이철)
- 제193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최용호)
- 제192호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0년 농업부문 수정 전망(서홍석, 김충현, 김준호)
- 제191호 2020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김종인, 한은수, 은종호, 서강철)
- 제190호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박미성, 박시현, 이용선)
- 제189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서홍석, 순병민, 김충현)
- 제188호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엄진영)
- 제187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박성진, 박지원, 강두현, 안정욱)
- 제186호 2020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